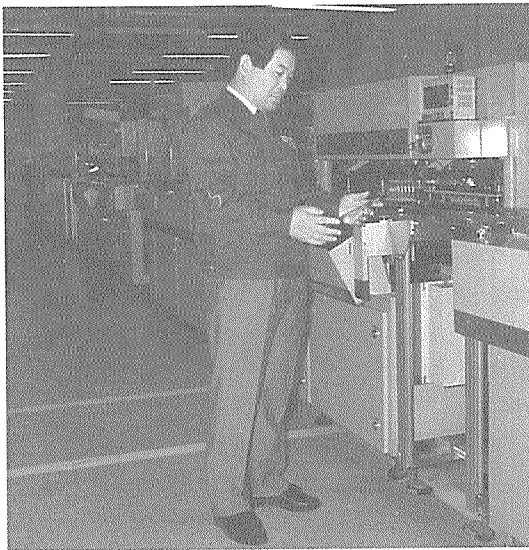


고객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업으로..



갑일전자(주) 黃熙善 代表理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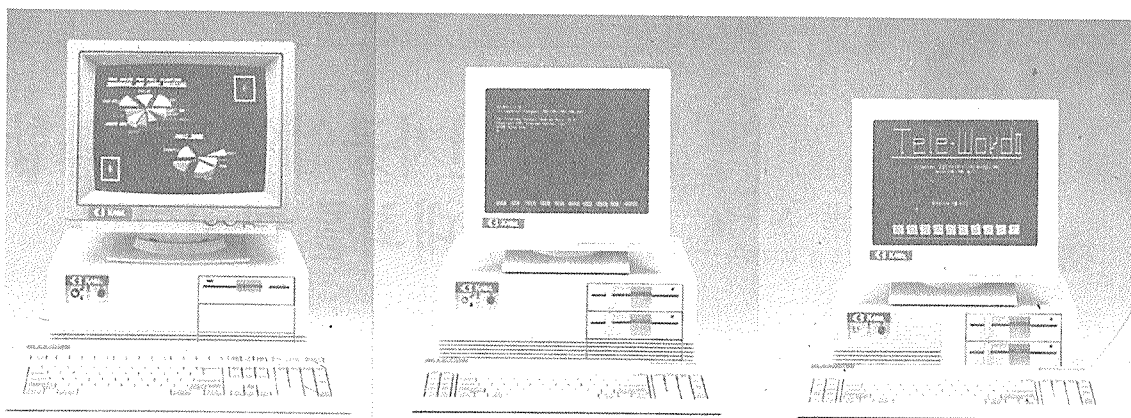
세 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컴퓨터업체인 텔레비디오의 한국지사로 '83년 4월 7일에 출발하여 작년 4월 9일 갑을그룹이 60%의 지분을 인수하여 새롭게 태어난 갑일전자는 중소 컴퓨터 전문업체로서 수출은 물론 최근 내수시장에도 참여하여 품질인증, 규격 획득(KS) 등 성가를 드높이고 있다.

本 誌가 찾은 갑일전자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제 3 단지에 대지 4,000평, 건평 3,200평으로 외관은 물론 내부까지도 정리정돈이 잘 된 깔끔한 모습이었다.

갑을그룹의 인수 직후인 '89년 4월 10일 대표이사로 취임한 黃熙善 사장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로서 금성사에서 근무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IBM에서 15년간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사업담당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곳에서 배우고 익힌 첨단기술 관리는 물론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갑일전자를 업계 경쟁에서 앞서가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화단결·합리추구·창의개발' 등을 사훈으로 450여 종업원과 맘을 홀리고 있다.

현 재 갑일전자에서는 디스플레이 터미널과 16비트 업무용 및 교육용 컴퓨터, 그리고 32비트 컴퓨터까지 생산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미니 컴퓨터 판매도 행하고 있다.

특히 16비트 컴퓨터에서 교육용으로는 작년 11월 KTA의 품질인증 시험에서 유일하게 1차로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지난 3월에는 XT/AT를 포함하여 전자파 장해(EMI) 시험, 한글·한자 입출력 시스템 시험 등에서 합격 하여



국내 최초로 16비트 컴퓨터의 KS규격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후발업체인 만큼 시장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출에서는 거래선을 확대하고 내수에서는 대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고객 위주의 품질고급화에 치중하여 고객에게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黃熙善 사장은 경영방침을 밝히고 있다.

자본금 113억원, '89년도의 매출 406억원, 작년의 매출신장률은 60%를 나타냈고 금년에는 매출 55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갑일전자는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60:40으로 끌어올려 국내 시장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동구권에도 이미 16비트 AT기종의 수출을 「KABIL」 자체 브랜드로 계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이기도 하다.

“우선 가격경쟁이라고 봅니다. 원가절감과 효율적인 홍보로써 세계시장에 「KABIL」 이미지를 심어야겠죠. 그리고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에 주력하면서 特需업체에 대한 상호보완은 물론 기술 제공까지를 전제로 집중 공략하고 특히 제품개발의 차등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회사는 450명 종업원 중에 50명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신뢰성, 다기능화 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라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의 전략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쟁 전략의 일환으로서 갑일전자는 이미 김포에 제 2 공장을 7,000평 규모로 건설을 시작하였다. 김포 제 2 공장에서는 디스크 드라이브, 자기 헤드(FDD, HDD용) 등을 생산하여 첨단 기술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컴퓨터의 급속한 기술 혁신 특성상 외국 선진기업과의 기술 제휴도 활발하여 미국의 텔레비디오의 터미널 관련 기술, 네트워크 제너럴의 LAN의 모니터링 등 분석시스템 관련 기술 등에 대하여 제휴를 함은 물론 에어택과 386, 486 기종의 공동개발 등에 경주하고 있다.

갑일전자의 黃熙善 사장은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간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업계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유통 및 가격구조가 합리적으로 발전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 정보산업체가 육성되어 핵심부품과 요소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산업발전관을 피력하였다.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국내외의 정보산업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러한 업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라고 확신합니다.”